

교정환자의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에 관한 연구

최길복¹, 지민경^{2*}, 윤미혜³

¹단국대학교 대학원, ²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³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A Study on Oral Health Impact Profile, Self-Esteem and Body Image of Orthodontics patient

Gil-Bok Choi¹, Min-Gyeong Ji^{2*}, Mi-Hae Yun³

¹Graduate course of oral health at Dankook University

²Division of Dental Hygiene, Howon University

³Division of Dental Hygien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교정환자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대전·청주지역의 교정치과에 내원한 환자로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기기입식방법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구강건강영향지수와 자아존중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상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신체상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적인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경험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치료 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정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신체상, 교정환자, 교정치료

Abstract The objective of study is to investigate Oral health impact profile, Self-esteem and Body image of orthodontic patients and to use it as basic data in consultation and education for orthodontic patient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Orthodontic patients in Seoul, Daejeon and Cheongju from March 1 to March 30, 2018.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impact profile and Self-esteem,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Body image. Self-esteem and Body imag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orthodontic patients are related to oral health impact profile, self-esteem and body image. So as to improve and experience positive body image and self-esteem changes while providing correct information, searching and accepting the present body image.

Key Words : Oral health impact profile, Self-esteem, Body image, Orthodontics patient, Orthodontic treatment

1. 서론

최근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방
송매체가 발달됨에 따라 외모와 미용성형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모에 대한 현대인들의 집착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외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올라가 단순
히 자기만족의 단계를 넘어 사회생활이나 심지어는 자아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도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1].

외적인 모습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존감, 인간관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모가 사회적 성공에

*Corresponding Author : Min-Gyeong Ji (air638@hanmail.net)

Received June 25,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July 04,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통념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그러한 조건에 도달하고자 애쓰고 있다[2]. 이러한 사회현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용성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Wengle은 미용성형은 신체에 대한 자기 확신, 자기 평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대인관계의 질, 성적 매력 등을 개선, 향상시켜 각 개인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3]. 특성상 미용성형은 환자의 정신·정서적 손상을 보완하여 일반적인 외모의 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 하여금 정신적 만족감을 동시에 갖도록 하여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4].

과거에 비하여 꾸준히 교정치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외모향상과 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목적으로 교정치료를 내원하는 환자들의 수가 높아지고 있다[5]. 교정치료는 치과 분야 중에서 가장 예술적이면서 심미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선택치료이며 저작기능과 발음을 개선하고 안모와 치열이 보다 나아지게 하여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만족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6]. 경제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외모 개선을 위해 치아교정을 하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현재까지는 주로 미용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7,8].

교정환자에게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감과 더불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의사와 환자의 관계성, 치료의 질적인 향상 및 만족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내원 동기와 내원 심리특성 변화를 잘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환자의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과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교정환자의 치료 상담과 교육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서울·대전·충주지역 교정치과에 내원한 환자 200명을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

한 연구 대상자는 서명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version 3.1.9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은 0.95, 예측변수(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신체상, 일반적 특성)을 11개로 감안하였을 때, 표본 크기 최소인원은 178명이었고, 탈락자를 고려하여 2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최종 분석대상자는 200명이었다.

2.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8문항, 구강영향지수는 14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신체상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강건강영향지수(OHIP)는 Slade가 OHIP-14에서 도출한 문항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9]. 측정기준은 Likert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영향지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값이 0.89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자아존중감 측정은 Rosenberg가 개발하고 전병재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0,11].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기준은 Likert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0.750이었다. 신체상은 Cash& Hicks의 다면적 신체-자신관계 질문지(MBSRQ: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를 지태욱이 번역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12,13]. 측정기준은 Likert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0.83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 1.0이상, 요인부하량 0.4이상을 기준으로 타당도가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신체상은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일원분산 분석법 후 평균비교는 Scheffe로 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0.05$ 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연령은 23-29세가 40.0%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자가 64.5%, 결혼상태는 미혼 83.5%,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71.0%, 종교는 없음 68.5%, 직업은 학생 45.5%, 경제수준은 중간 72.0%, 교정치료 받는 이유는 예뻐지기 위해서가 53.5%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s	Unit: N(%)	
		N	%
Age (year)	<23	69	34.5
	23~29	80	40.0
	≥30	51	24.5
Sex	Male	71	35.5
	Female	129	64.5
Marital status	Unmarried	167	83.5
	Married	33	16.5
Education level	College	137	71.0
	Over university	63	29.0
Religion	Yes	58	31.5
	No	142	68.5
Occupation	Specialized job	31	15.5
	Office job	33	16.5
	Production employee	14	7.0
	Service industrial	13	6.5
	Self-employed	14	7.0
	Student	91	45.5
	Housewife	4	2.0
Economic level	Good	3	1.5
	Average	144	72.0
	Poor	53	26.5
Reason of orthodontic treatment	Tooth health	62	31.0
	Improve appearance	107	53.5
	Social life	24	12.0
	Ect	7	3.5

3.2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신체상의 평균점수

Table 2에서 구강건강영향지수는 2.23점, 자아존중감은 3.34점, 신체상은 3.36점이었다.

Table 2.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Characteristics	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	SD	Cronbach's α
OHIP-14	200	1.00	4.79	2.23	0.64	0.892
Self-Esteem	200	1.20	5.00	3.34	0.56	0.750
Body Image	200	2.24	4.38	3.36	0.46	0.832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영향지수

Table 3에서 성별($p=0.027$)은 '여자'에서, 직업($p=0.004$)은 '자영업'에서 구강건강영향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3. OHIP-14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OHIP-14	t or F (p -value)
Age (year)	<23	3.80±0.57	0.240 (0.787)
	23~29	3.78±0.70	
	≥30	3.72±0.64	
Sex	Male	2.09±0.53	-2.2227 (0.027)
	Female	2.30±0.68	
Marital status	Unmarried	3.79±0.63	0.675 (0.501)
	Married	3.70±0.68	
Education level	College	3.79±0.54	0.590 (0.557)
	Over university	3.73±0.81	
Religion	Yes	3.89±0.54	1.698 (0.091)
	No	3.72±0.67	
Occupation	Specialized job	3.57±0.84	3.306 (0.004 ^a)
	Office job	3.72±0.59	
	Production employee	3.44±0.66	
	Service industrial	3.84±0.72	
	Self-employed	4.23±0.33 ^a	
	Student	3.82±0.54 ^b	
	Housewife	3.98±0.67	
Economic level	Good	4.12±0.45	0.718 (0.489)
	Average	3.79±0.66	
	Poor	3.71±0.57	
Reason of orthodontic treatment	Tooth health	3.78±0.70	0.866 (0.460)
	Improve appearance	3.81±0.51	
	Social life	3.58±0.88	
	Ect	3.73±0.87	

^a: $p<0.05$, ^b: $p<0.01$.

^a 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3.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Table 4에서 교육수준($p=0.001$)이 '대학교이상'에서, 직업($p=0.015$)은 '자영업'에서, 경제수준($p=0.020$)은 '상'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4.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Self-Esteem	t or F (p-value)
Age (year)	<23	3.27±0.58	1.168 (0.313)
	23~29	3.42±0.68	
	≥30	3.43±0.68	
Sex	Male	2.81±0.73	-0.204 (0.839)
	Female	2.83±0.60	
Marital status	Unmarried	3.37±0.64	-0.232 (0.817)
	Married	3.39±0.68	
Education level	College	3.20±0.56	-5.808 (0.001 ^{**})
	Over university	3.73±0.68	
Religion	Yes	3.40±0.70	0.370 (0.712)
	No	3.36±0.63	
Occupation	Specialized job	3.38±0.73	2.715 (0.015)
	Office job	3.65±0.55	
	Production employee	3.21±0.62	
	Service industrial	3.42±0.66	
	Self-employed	3.80±0.81	
	Student	3.23±0.57	
	Housewife	3.00±0.82	
Economic level	Good	4.26±0.23 ^a	4.013 (0.020)
	Average	3.40±0.63	
	Poor	3.25±0.66 ^b	
Reason of orthodontic treatment	Tooth health	3.41±0.70	2.028 (0.111)
	Improve appearance	3.29±0.57	
	Social life	3.51±0.80	
	Ect	3.78±0.56	

^{*}: p<0.05, ^{**}: p<0.01.
^a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3.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신체상

Table 5에서 ‘연령’(p=0.022)은 ‘23세미만’에서, 성별(p=0.017)은 ‘남자’에서, 교육수준(p=0.001)은 ‘대학교이상’에서, 직업(p=0.004)은 ‘학생’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이유(p=0.010)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에서 신체상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5. Body Im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Body Image	t or F (p-value)
Age (year)	<23	3.46±0.46 ^a	3.878 (0.022)
	23~29	3.26±0.43 ^b	
	≥30	3.39±0.43	
Sex	Male	3.46±0.45	2.411 (0.017)
	Female	3.30±0.45	
Marital status	Unmarried	3.31±0.32	-1.504 (0.134)
	Married	3.41±0.35	

Education level	College	3.22±0.31	7.228 (0.001 ^{**})
	Over university	3.38±0.36	
Religion	Yes	3.33±0.31	0.115 (0.909)
	No	3.33±0.34	
Occupation	Specialized job	3.24±0.48	3.302 (0.004 ^{**})
	Office job	3.19±0.35	
	Production employee	3.28±0.45 ^a	
	Service industrial	3.28±0.39	
	Self-employed	3.27±0.29	
	Student	3.51±0.45 ^b	
	Housewife	3.49±0.69	
Economic level	Good	3.17±0.19	0.364 (0.696)
	Average	3.36±0.43	
	Poor	3.39±0.51	
Reason of orthodontic treatment	Tooth health	3.39±0.42	3.902 (0.010 ^{**})
	Improve appearance	3.42±0.45	
	Social life	3.17±0.47	
	Ect	2.98±0.33	

^{*}: p<0.05, ^{**}: p<0.01.
^a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3.6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과의 상관관계

Table 6에서 구강건강영향지수와 자아존중감(r=.205,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신체상(r=.143, p<.001)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신체상(r=.268 p<.001)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6.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ognition of OHIP-14, Self-Esteem, Body Image

	OHIP-14	Self-Esteem	Body Image
OHIP-14	1		
Self-Esteem	.205 ^{***}	1	
Body Image	.143 ^{***}	.268 ^{**}	1

^{***}: p<.001.

4. 논의

최근에는 심미치료와 치료의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변화와 소득수준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교정치료를 관한 수요는 계속 높아져 교정치료를 받지 않던 성인들까지도 심미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추세이다[14].

부정교합을 회복하는 치료방법인 교정치료는 구강내의 장치를 사용하여 근육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치아를

양호하게 위치시켜서 구강위생 및 발음의 개선, 심미성의 증진을 도모하게 되며, 구강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한다[15,16].

이에 본 연구는 교정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에 관한 연관성을 파악하여 교정치료 상담 및 교육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여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박영남과 이미라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5]. 이재화와 한경순의 연구에서 구강건강행위 실천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칫솔질 부위 및 횟수, 구강위생용품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17].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교육수준이 '대학교이상', 직업은 '자영업', 경제수준은 '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박경아의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대학교재학 이상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정희 등의 연구에서 직업은 자영업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18-20]. 또한 박경아의 연구에서 학생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에서 자아존중감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석되었으며, 박영남과 이미라의 연구에서는 사무관리직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5,18]. 박영남과 이미라, 이정희 등의 연구, 민경진과 도정애, 최영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수입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었다[5,19,21,22]. 윤영숙과 정영희의 연구에서 성별, 종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나타냈으나 민경진과 도정애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박영남과 이미라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높게 나타나 향후 남녀성별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에 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5,21,23].

본 연구에서 신체상은 23세미만, 남자, 교정치료를 받는 이유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에서 높게 나타났다. 윤영숙과 정영희의 연구에서 연령,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종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만 19세 이하인자가 만 20세 이상인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외모에 대해 10대들이 더 긍정적인 신체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남자가 여자 보다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나 남자에서 신체상을 더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23]. 윤현서의 연구에서 교정치료의 동기로 시작연령은 20대에서 높게 나타나 신체상을 느끼게 되는 시기라고 여겨진다고 하였다[24]. 박영남과 이미라의 연구, 박경아의 연구에서도 교정치료를 받으려는 이유는 미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윤현서의 연구에서 교정치료 계기는 보기 싫어서가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5,18,24].

본 연구에서 구강건강영향지수와 자아존중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신체상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신체상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박영남과 이미라의 연구에서 교정환자의 구강건강영향지수(OHIP)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커짐으로 구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삶의 불편이나 제한 등이 낮은 것이며, 교정환자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존중감, 만족감이 클수록 구강건강에 관심과 신경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5]. 강유주 등의 연구에서는 일상활동구강영향(OIDP)은 자기존중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정치료가 장기로 인한 일시적 불편감으로 일상활동구강영향이나 신체적 요인이 낮긴 하나, 교정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보다 행복감이 높아지므로, 장기적 삶의 관점에서 구강건강 및 심미적 면에서 도움이 되고, 좋아짐을 느끼는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25]. 윤영숙과 정영희의 연구에서 신체상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는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박경아의 연구에서도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18,23].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므로써 자아존중감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정치환자의 신체상과 자존감간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측면의 이해와 교육 및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8,23].

삶의 질의 영향요인인 자아존중감, 구강관리능력과의 관련성, 치과 의료에 대한 최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제적인 적용 등을 융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정환자의 내면 심리를 잘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26-28]. 교정환자들의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구강건강상태, 심리상황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교정치기간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24]. 또한 치과위생사는 교정치료환자가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를 높

일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연구하고, 차별화된 구강위생 융합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29].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지역 교정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교정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다양한 변수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정 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현재의 신체상을 탐색, 수용하면서 긍정적인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경험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치료 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정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교정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에 관한 연관성을 파악하여 교정환자의 교정치료 상담 및 교육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대전·청주지역의 교정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방법으로 설문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정환자의 구강건강영향지수는 2.23점, 자아존중감은 3.34점, 신체상은 3.36점이었다.
2. 구강건강영향지수는 성별은 '여자', 직업은 '자영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은 교육수준이 '대학교이상', 직업은 '자영업', 경제수준은 '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4. 신체상은 연령은 '22세미만', 성별은 '남자', 교육수준은 '대학교이상', 직업은 '학생', 교정치료를 받는 이유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에서 높게 나타났다.
5. 구강건강영향지수와 자아존중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신체상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신체상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 교정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 및 신체상은 상호 연관성을 보여 추후 다양한 변수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정

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치료 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정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G. Y. Lee. (1998). A Study on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Sociality. *Student Counseling study*, 11, 1-18.
- [2] S. Y. Yim. (2000). *Body Image and Self-Esteem of The Patient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and General Pers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wha woman, Seoul.
- [3] H. P. Wengle. (1986). The psychology of cosmetic surgery: a critical over view of the literature. *Annals of Plastic Surgery*, 16(5), 435-443.
- [4] K. W. Chi & S. I. Lee. (2001). The Psychological Attribute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Patients and Effect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4), 559-568.
- [5] Y. N. Park & M. R. Lee. (2010). Main cause of influencing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and self-esteem of orthodont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3), 513-522.
- [6] M. H. Jung. (2007). Effects of malocclusion and orthodontic treatmen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Orthodontists*, 37(1), 56-64.
- [7] J. H. Ha & Y. S. Song. (2005). Body Ima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Aesthetic Plastic Surgery patients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Health & Nursing*, 17(1), 59-69.
- [8] Y. J. Kim. (2007). Effects of Aesthetic surgery on Body Image,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Outcom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3(3), 1236-1246.
- [9] G. D. Slade. (1997). Derivation and validation of as short-form oral health impact profile. *Journal of Community Dentistry and Oral Epidemiology*, 25(4), 284-290.
- [10] M. Rosenberg. (1973). Which significant other.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6(6), 829-860.
- [11] B. J. J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chong*, 11, 109-129.
- [12] T. F. Cash & K. I. Hicks. (1990). Being fat versus thinking fat: Relationships with body image, eating behaviors and wellbe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323-341.

- [13] T. O. Ji. (1997). *Body-image and depression in adolescent girls*. University of Kyungbuk, Daegu.
- [14] M. H. Jung. (2009). Current trends in orthodontic patients in private orthodontic clinics.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 39(1), 36-42.
DOI : 10.4041/kjod.2009.39.1.36.
- [15] M. H. Ko et al. (2008). *Orthodontics. 2nd ed*. Seoul: Komoonsa : 1-250.
- [16] H. H. Min, J. H. Jeon & G. B. Choi. (2016). Influence of service and value quality satisfaction on revisit intention in orthodont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2), 329-335.
DOI : 10.13065/jksdh.2016.16.02.329
- [17] J. H. Lee & G. S. Han. (2011). Oral Health Behavior Levels and Oral Hygiene Condition in Fixed Type Orthodontic Appliance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1(6), 489-495.
- [18] K. A. Park. (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Esteem between Orthodontic patients and General Dental Patients*. University of Ewha Womans, Seoul.
- [19] K. H. Lee, N. R. Kim, J. H. Kim, H. M. Park, Y. H. Jin & E. S. Jung.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orthodontic treatment on the patient's social life and self este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2), 203-213.
DOI : 10.13065/jksdh.2017.17.02.203
- [20] M. Y. Kim. (2008). (A) study on the gratification of the patient in the dental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46(1), 65-82.
- [21] K. J. Min & J. A. Do. (2009). The influence of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 on self-esteem of patients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7), 1773-1778.
- [22] Y. Choi, M. S. Lee & M. S. Lee. (1994). Ego-Identity of Women Seeking Double Eyelid Oper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2(1), 80-87.
- [23] Y. S. Yon & Y. H. Jung. (2004).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body image and self-respect of patients who have teeth bra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4(1), 81-91.
- [24] H. S. Yoon. (2017). Types of malocclusion and oral health effect index(OHIP-14) according to recognition of orthodontic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2), 434-442.
DOI : 10.5762/KAIS.2017.18.12.434
- [25] Y. J. Kang, A. R. Seo, Y. S. Kang, B. G. Jeong & K. S. Park. (2017). Oral Impact on Daily Performance and Happiness related to Orthodontic Treatment of Som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Malocclusion.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42(2), 69-78.
- [26] J. S. Kim. (2018). Schizophrenic Patients Impact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53-58.
DOI : 10.22156/CS4SMB.2018.8.1.053
- [27] J. R. Lim, Y. K. Han & H. H. Kim. (2017). The Relationship of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and Oral Management Ability of Vietnam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109-119.
DOI : 10.15207/KCS.2017.8.6.109
- [28] M. G. Ji. (2017). Convergenc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Reuse Intention in Patients Visiting a Dentis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9.
DOI : 10.22156/CS4SMB.2017.7.4.001
- [29] Y. T. Nam & Y. R. Kim. (2017). A comparative study on oral health index after oral health care program for orthodont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2), 215-224.
DOI : 10.13065/jksdh.2017.17.02.215

최길복(Choi, Gil Bok)

[정회원]



- 2017년 2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 석사
- 2017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보건, 치아교정

▪ E-Mail : gilbok91@naver.com

지민경(Ji, Min Gyeong)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학과 석사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보건, 치의학, 융합

▪ E-Mail : air638@hanmail.net

윤 미 혜(Yun, Mi Hae)

[정회원]



- 2013년 8월 : 단국대학교보건복지대학원 구강보건학 석사
- 2017년 2월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 구강보건학 박사
- 2013년 8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통계, 구강보건학, 융합
- E-Mail : papa0710@nate.com